

# 용과 봉황 가득한 정토

## 개암사 대웅보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가람의 장면들

16



전북 부안군 산내면 감교리 울금산 정사에는 잘 생긴 한쌍의 바위가 붙속 솟아있다. 이 바위가 울금바위이고 산 정상부의 산성이 울금산성이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후 도침과 복신의 지휘아래 저항군을 이루어 백제부흥운동을 벌였던 주류성이 바로 이곳이라고 전한다. 개암사는 주류성 아래 산중턱에 자리잡아 마치 울금바위를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다.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장식된 개암사 대웅보전의 천장부분. 부처님이 주재하는 정토의 세계를 상징화 하고 있다.

이 절의 역사는 634년 묘연왕사기 기준의 변한 궁정터를 사찰로 고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고려때는 전각 30여동의 큰 사찰이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대웅보전과 3~4동의 부속채만 있을 뿐이고 그들의 배열도 예전과는 관계가 없어 전체적으로 그다지 짜임새 있는 가람은 아니다. 그러나 울금바위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대웅보전의 경관은 일품일 뿐 아니라 이 절전은 조선 중기의 시대적 특징을 대표하는 화려한 불전이다. 임진왜란의 정화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전평후 전국 각지에서 가람복원의 도도한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알거지가 된 형편이어서, 불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란 하늘의

## 포작·주두·침차·소로의 장식 연꽃들이 환하게 핀 형상

별 따기였다. 따라서 전쟁전과 같이 대규모의 가람을 다시 재건하기는 불가능했고 기껏해야 주불전 한 동과 승방 정도를 지을 수 있었다. 개암사 대웅보전 역시 임진왜란 40년 후인 1640년여야 비로소 중건되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불사가 없어서 대웅보전만 달랑 서 있는 단순한 가람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규모가 단순하고 작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지어진 불전들은 대단한 정성과 솜씨로 꾸며졌다. 전쟁을 통해 오히려 순화된 불상들이 가람의 건물을 장식하게 장식하는데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그 뛰어난 장식성 때문에 학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우선 기둥을 상부에 놓여진 포작의 주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두 밑에는 한치 두께의 정사각형 관저를 깔았는데 마치 고려시대의 글받침을 가진 주두같이 보인다. 인근 선운사 참담암에 있는 고려시대 주두를 흉내낸 것일까. 원래 법당이 있던 곳에서 지리

를 옮겨 중창되었다는 기록으로 본다면 이전에 옛 방식을 따른 법당이 잔존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중창하면서 옛 건물의 글받침 주두를 흉내낸 것이 아닐까? 이 건물의 큰 특징은 전면에 올려진 포작들의 장식성이다. 포작을 받치는 주두는 꽃잎 모양으로, 침차는 연꽃 줄기로, 소로는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꽃들이 환하게 핀 형상이다. 익산 송림사 보광전도 부각한 주두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같이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각되지는 않았다. 전면 창호의 화려한 꽃살 창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는 평범한 살창이었다고 전한다. 내부공간의 상징성과 화려함은 외관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법단을 뒤로 물리고 천장을 3단으로 짙어올려서 내부공간은 넓고 높적이다. 내부공간은 한마디로 용들로 장식된 불국토이다. 사방 끝방으로 뿔뿔히 부채를 깔은 용머리

로 장식하여 여기저기서 용들이 꿈틀대고 있고, 날개를 활짝 핀 극락새들이 이리저리 날아 다닌다. 용과 봉황이 얼마나 많은지 내부에만도 용 9마리와 봉황 13마리, 바깥으로는 용 2마리와 봉황 9마리, 그리고 도깨비 2마리가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다 화려하게 꾸며진 달집속에서 5마리의 용들이 꿈틀대고 있다. 불전의 내부는 완벽하게 부처님이 주재하는 하늘의 세계, 정토의 세계를 상징화하고 있다. 이전의 사찰들에서는 (불국사가 대표적으로) 가람전체가 불국토를 상징하도록 구성되었지만 이제 그 상징화의 범위가 법당 내부로 축소되었다. 그만큼 불교세가 위축되었음을, 그러나 정토에 대한 희구는 본질적인 소망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절집에 많이 등장하는 용은 부처를 호위하는 여덟 수호신(팔부신중) 가운데 하나다. 용에 대한 신앙은 원래 인도 중국 한국의 토착신앙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되면서 호위신앙으로 변모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용을 25가지로 분류하며, 중국에서도 용을 흑룡 황룡 교룡 규룡 기룡 사룡 가룡 등 많은 종류로 나누어왔다. 대웅보전의 많은 용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용들의 생김새와 외형을 되새겨 보는 것도 이 건물을 감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 발가락까지 사실적 묘사

## 제천 명암리 미륵불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중생을 위해 나부신 부처님은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언제부턴가 자신의 위엄도 버리고 코를 스스럼없이 때어주었다. 그래서 더욱 자상하고 친근감을 더해주는 돌부처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코가 문드러진 불상중 하나인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미륵불 미륵불은 특이하게 목화석으로 조성됐다. 목화석은 돌의 결정체가 굽어



○제천 명암리 미륵불은 특이하게 목화석으로 조성됐다.

수인은 통인으로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쪽으로 내밀었는데 약지와 소지를 구부린 왼손은 흔히 고식(古式)불상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복련의 연화좌대에 원형기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서 있는데 직립형으로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회원은 "불상의 조성형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유행한 식존 5인의 하나인 통인, 통권, 6중신 비유, U자 형태의 옷주름, 앙감있는 사실적인 신체의 표현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리=김희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 목화석 사용 특이 삼국시대 만든 듯

조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암리 불상은 유난히 섬세하고 부드럽다.

미륵불입상은 높이가 2m40cm, 견폭 62cm, 두께 38cm, 총폭 37cm 크기로 대형이며 원형보존이 잘 돼 있다.

두상은 소매에 육계를 하고 있으며 약간 좁은 듯한 이마에 백호공이 있다. 초생달같은 눈썹과 마모되어 눈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지만 미소를 머금은 평안(平安)형의 눈, 코, 입은 눈썹에서 흘러내려 중심을 잡고 있다. 또 앙감이 풍부한 얼굴과 예쁘게 사실적으로 조성된 귀 등 전체적으로 귀인상이다.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 의문(衣紋)은 가사를 두른듯 하고 큰 법의는 가슴아래부터 U자 형태의 불결무늬가 부드럽게 발등까지 흘러내렸다.

## 남원 마애여래 입상

고종=정영호 박사

## 고려불상...명문은 후대에 새겨



남원 양기리의 마애여래입상(본지 243호 14면 참조)은 법의의 두터움과 형식적인 광배표현, 신체적 육감으로 보아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됐다.

법공같은 바위중앙에 양각으로 조성돼 있는 마애불은 손목 등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눈, 코, 입의 형태가 뚜렷하다. 대체로 상호는 원형감이 풍부하고 목에도 삼도가 뚜렷하다. 특히 마애불이 있는 바위 상단부에 양쪽으로 홈을 파서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을 만든 것이 눈에 띈다. 마애불 왼쪽에 있는 명문은 마모된 보존상태로 보아 후대에 새겨졌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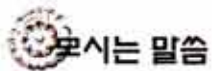
○남원 양기리에 있는 마애여래입상. 원만하고 뚜렷한 상호와 배수로가 설치된게 특징이다.

고칠 지난 243호 14면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사진이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바뀌어 바로잡습니다.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대한불교조계종

#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성을 발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경남 울산 지역 불자님들의 수행 도량이 될 새법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터를 잡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뜻은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일체가 내 한마음의 나뭇잎을 일깨워 주시는 대행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 스님을 모시고 상량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뜻깊고 의미있는 법석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속에 깊이 안락하기를 발원합니다.

울산지원 사부대중 상배



- 일시 : 불기 2543년 11월 28일 11:00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 울산지원 : 052)244-0884 / FAX 052)244-0182
- 불사현장 : 052)282-5077

